

정읍 단풍, 관광·소득자원으로 키운다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다각적인 방안 모색

식재 패턴 다양화·유전자원 보호·수액 채취 허용 등

정읍시가 지역의 상징인 단풍을 관광과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정읍시는 최근 시 간부공무원과 전북대 산림환경과학과 한상섭 교수, 내장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종섭 과장, 들꽃식물원 유길중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

운데 ‘정읍단풍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읍단풍’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정읍 단풍나무의 활용도를 높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단풍나무의 식재패턴 다양화를 비롯해 ▲내장산·아기단풍 등 내장산 고유 단풍나무의 유전자

원 보존을 위한 유전자원 보호증식 ▲시내 권 단풍나무 식재관리 방안 ▲국립공원 내 장산 단풍나무 보호증식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시는 내장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국내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는 내장산의 주요 단풍나무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내장산 국립공원내에 있는 ‘단풍 터널’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공원의 공터와 내장호 주변 등지에는 단풍나무를 추가로 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령 200년 이상 된 내장산의 단풍나무를 천연기념

물로 지정해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에게 단풍나무의 고로쇠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이 수액으로 메이플시럽 등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풍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량을 통해 정읍단풍의 명성을 드높이겠다”며 “내장산은 물론 시내권에도 관광객이 유입되어 실효성 높은 ‘관광 정읍’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전남 소식

“국내 희귀 상사화, 한눈에 보세요”

전남산림림, 특화구역 조성

국내에 자생하는 희귀 상사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상사화 특화구역이 조성된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생물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일환으로 현재 나주시 산포면에 조성 중인 화목원에 상사화 특화구역을 만들어 일반인에 공개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화목원은 연중 꽃이 피는 화목류를 위주로 느티나무 등 나무은행으로 기증받은 노거수와 국내 자생 상사화류를 도입해 도입들의 휴식공간 및 교육의 장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증식해 새로운 품종 개발에 필요한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상사화는 ‘수선화과’ 식물로 제주도를 포함한 중부 이남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8~9월 분홍색 꽃이 피며, 관상용으로 심고 한방에서는 비늘줄기를 약재로 쓰기도 한다.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으므로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한다’고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화목원의 상사화.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입한 상사화 종류는 국내 자생종 6종류다. 흰색, 분홍, 붉노랑, 진노랑, 주황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피는 꽃들을 7월 말부터 9월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박희식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일반인들이 흔히 붉게 피는 석산(꽃무릇)을 상사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 오면 상사화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학생들이나 야생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개장식 모습. 문동신 군산시장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관영 국회의원,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 4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GSCO) 개장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북지역 최초의 전시 컨벤션센터인 GSCO는 2000석 규모의 컨벤션홀과 9개의 중소 회의실 9개, 전시관(3697㎡), 야외전시장(7300㎡) 등을 갖췄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88고속도가 단절시킨 남원 갈계마을 농경지 30년 만에 속원 해결

88고속도로에 의해 농경지가 단절돼 통행과 영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남원시 갈계마을 주민들의 속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남원시 아영면 갈계마을 주민들은 지난 1980년 88고속도로 건설 당시 대형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비좁게 굴다리과 농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농지의 농사를 지어오면서 30여년간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굴다리도 같이 확장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기존 농로는 손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속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한 국도로공사와 남원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한 끝에 지난 3일 남원시 아영면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남원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용지보상 등을 통해 굴다리와 연결된 농로확장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남원시가 부지를 확보하면 곧바로 농로를 신설하고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광양경찰서, 4대악 근절 평가 도내 1위

노인 상대 ‘뺨다방’ 검거 등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가 최근 전라도 경찰청 주관의 올 상반기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평가에서 도내 21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광양경찰청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을 비롯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적극 보호 ▲가해자 삼진아웃제 도입 ▲학교폭

력 예방을 위해 ‘선샤인(Sunshine) 이동상담소’ 운영 ▲노인을 상대로 약품을 판매한 ‘뺨다방’ 검거 등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효식 서장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일처리 과정에서 주민을 정성껏 섬기고, 정확하고 정직한 업무 처리를 통해 믿음주고, 사랑받는 광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군산 ‘옛 조선식량영단’ 문화재 등록 예고

일제 쌀 수탈 증거로 가치높아 근현대 모더니즘 경향 보여줘

문화재청은 최근 군산시 영화동에 자리한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조선 식량영단(朝鮮食糧營團)은 일제 식량 수탈기관으로, 군산 출장소 건물은 일제에 의한 호남평야 지역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증거물로 가치가 있다. 조선식량영단으로 사용된 타지역 건물은 거의 멸실된 상태이다. 해방 후에는 조선생활 품영단, 정부 수

립 후에는 대한식량공사와 조달청 등 여러 관공서로 사용되다가 1989년 이후에는 군산시 제3청사로 사용됐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쌀 수탈상과 해방 후 미 군정기의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건물로, 미국수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근대기 역사자료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

또한 건축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비대칭적인 입면, 수평 차양띠, 모서리 곡면 등 초기 양식주의에서 모더니즘 경향을 일부 보여주는 과도기적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

소’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일본식 사찰 동국사(국가등록문화재 64호)를 비롯해 일본인 농장창고(제182호), 구 히로쓰 가옥(제183호), 해망굴(제184호), 제1수원지 제방(제207호), 임피역사(제208호), 구 일본 18은행(제372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제374호), 어청도 등대(제378호), 구 군산세관(전북도 기념물 제87호) 등 많은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권/층/업/종

- 1층 금웅권, 약국, 커피매출,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레스토랑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웨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사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빛가람동 주민센터

사업지 및 분양사무실
중앙호수공원